

漢詩의 國文學史的 處理 試攷

李 圭 虎*

I. 序 論

國文學史의 記述에 있어서 漢文學의 處理問題는 그 동안 많은 論義를 거쳐 오면서¹⁾ 하나의 歸結點으로 收斂된 듯하다. 즉 理論的인 面에서는 漢文學도 當然히 國文學인 만큼 國文學史의 記述에 있어서 自然스럽게 編入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그것이다. 그러나 理論과 그 實際 사이에는 아직도 커다란 間격이 놓여 있음을 또한 否定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그 한 例로서 張德順 教授의 方法論에 대한 崔信浩 教授의 所見을 引用해 봄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國文學을 定義하고 韓國語로 쓰여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關心을 모았다. 이에 對해서는 張博士는 漢文과 韓國이라는 特殊 條件, 또 作品 生産의 與件으로 보아도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을 指摘하고 비록 그것이 漢文으로 記述되었다 하더라도 「韓國的인 思惟」가 담긴 것이라면 韓國文學이 된다고 主張하였다. 이어서 張博士는 그러한 「韓國的인 思惟」가 담긴 漢文學 作品을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서 끌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傾注하였다. 그것은 주로 鄉歌, 民謠, 漢詩, 隨筆, 小樂府, 俗謠 등으로 限定되어 있다. 張博士의 作業은 이에 關心한 여러 學者들에 비하면 많은 進전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 博士課程 (大邱大學校 國語國文學科)

- 1) 그 동안의 論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張德順, 「漢文學의 國文學史的 處理試考」(聖心語文論集 第4輯, 1977)
鄭漢模, 「開化期 詩歌의 諸問題」(韓國學報, 第6輯, 一志社, 1977 봄호)
崔信浩, 「國文學과 漢文學의 連續性 問題」(聖心語文論集 第11輯, 1980)
趙東一, 「문학연구방법」(知識產業社, 1980)
趙東一, 「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관점」(마당 창간호, 마당社, 1981)

렇다고 問題가 시원하게 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난어지 장르에 해당하는 遺産은 어떻게 處理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기 때문이다.”²⁾

崔教授의 말대로 張博士의 方法論은 대단히 革新的이라 할 수 있으며 그 方法論에 立脚해서 지어진 것이 곧 「韓國文學史」³⁾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張博士가 「韓國的인 思惟」가 담긴 것이라면 韓國文學이 된다고 主張하면서도, 한글 創製 以前의 漢文學만을 國文學史에 受容한 事實은 國文學과 漢文學의 連續性을 把握하는 데 커다란 支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 증거는 앞으로 提示될 것이지만, 一例로 漢詩文學 內에서의 ‘朝鮮詩’ 追求過程은 麗朝로부터 始源하여 現代文學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漢詩의 處理에 있어서는 一定한 選別의 基準이 設定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이 이에 擡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韓國文學史」의 記述 方法論은 그 동안의 漢文學者나 口碑文學者들의 念願을 어느 정도 풀어 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評價받고 있다. 다음과 같은 念願은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문학사 서술에서 언제까지나 구비문학과 한문학을 대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구비문학의 구실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한문학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문 문학은 이 둘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성장하는 데 더욱 결정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다. 그 단계에 이르면, 국문 문학만이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문학사의 주역 노릇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문학사 서술의 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단계를 앞당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구비문학과 한문학의 유산을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전통으로서의 의의를 입증하는 데 계속 힘쓸 필요가 있다.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 문학을 대등하게 다루는 문학사는 이 시대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자는 것이다”⁴⁾

2) 崔信浩, 前掲論文(前掲論文集, p.22).

3) 張德順, 「韓國文學史」(同和文化社, 1980).

4) 趙東一, 「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관점」(前掲書, p.225)

趙東一 教授의 「한국문학동사(1)」(知識産業社, 1982)는 이러한 그의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집필된 저서이나, 詩漢의 處理方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 속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實情이다.

앞으로는 口碑文學의 구실이 상대적으로 弱化되고 漢文學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하루 바빠 口碑文學, 漢文學, 國文文學을 대등하게 다루어야 할 文學史的 使命을 促求함이 그 要旨이다. 그러나 이러한 要請이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터이다. 특히 漢文學의 경우에는 그 老大的 遺産을 國文學의 持續性이란 大前提 下에 選別해 내는 作業이 隨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漢文學, 그 中에서도 漢詩의 處理方法을 提示하여 앞으로 쓰여질 國文學史的 記述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漢詩만을 문제 삼는 것은 첫째, 많은 漢文學 樣式 가운데 文學性을 鮮明하게 띠었으며 둘째, 國文詩歌와의 接脈이 가장 旺盛했으며 셋째, 現代文學에의 繼承이 가장 顯著함에도 불구하고 既往의 國文學史 著書들에선 이 漢詩 分野를 가장 소홀히 다룬 인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作業을 遂行하는 데 있어서 筆者는 古典과 現代의 接脈現象의 穿鑿이라는 大命題 아래 國文學의 持續性을 追跡할 수 있는 方法을 可能한 限 폭 넓게 탐색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繼承’이라는 概念에 힘입은 바 큰을 미리 밝혀 둔다.

“...문학사의 운동은 계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앞 시대의 문학은 뒷 시대의 문학으로 지속되고, 지속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속과 변화를 함께 포괄하는 것이 계승이다. 계승은 지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데 귀착한다. 어느 시기의 문학, 문학의 어느 갈래, 어느 작품은 모두 지속과 변화를 아울러 내포한 계승으로 존재하고, 계승되면서 존재한다.”⁵⁾

앞으로 Ⅲ章에서 言及될 1) 「朝鮮詩」의 追求過程, 2) 「詩歌一道」思想의 흐름, 3) 「次韻」의 傳統形成過程은 바로 이 ‘繼承’ 문제에 대한 解答이며, 同時에 漢詩 選別의 基準이 될 것이다. 이러한 基準이 設定되어야만 漢詩 中에서도 繼承에 關係한 것만이 올바르게 捕捉될 公算은

5) 趙東一, 「문학연구방법」, p.231.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결과 가장 理想的인 國文學史의 出現 時期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期待를 갖게 될 것이다.

II. 漢文學史의 補完問題

完璧한 國文學史의 記述에 앞서서 漢文學에 對한 철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함은 必然이다. 그러나 現在까지 나타난 韓國漢文學史 著書들에 是 補完되어야 할 分野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 또한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特히 開化期의 漢文學은 前代 漢文學의 持續이면서도 變化가 눈에 띄게 활발하다는 點에서 注目에 값한다. 더구나 이 時期의 漢文學은 漢文學의 掉尾를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後代의 國文學에 諸要素를 繼承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點에서 결코 忽視될 수 없는 터이다. 따라서 開化期의 漢文學에 대한 研究는 대단히 時急하다는 結論에 도달한다. 이에 本稿에서는 漢詩에 關聯되고 있는 舊韓末 漢詩批評과 開化期 漢文小說의 變化에 焦點을 맞추면서 韓國漢文學史의 補完作業을 간략하게 遂行하고자 한다.

1. 舊韓末 漢詩 및 批評

舊韓末의 漢詩 및 그에 따르는 批評은 주로 舊韓末의 學會誌를 中心으로 紹介되고 있다. 그런데 大部分의 學會誌는 다음의 圖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06~1909년에 창간, 1907~1910년에 폐간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使用하는 ‘舊韓末’이란 用語도 실제로 國權을 喪失한 1906~1910년을 指稱한다.

〈表 I〉에는 批評이 隨伴된 漢詩만을 보였으나, 실제로 發表된 漢詩의 숫자는 批評의 總分量인 235則을 훨씬 웃돈다. 그런데 開化期 漢詩 및 批評은 이처럼 많은 수치에서 重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낸 主題意識과 그들이 담당했던 歷史的 乃至 文學史的 機能이 더욱 重要한 것이다. 舊韓末의 詩人和 批評家들은 詩나 批評文을 통해서 自主的 抵

〈表 I〉⁶⁾

學 會 誌	批評活動 時期	批評分量	發 表 欄
大韓自強會 月報	1906. 8~1907. 6	27則	文苑「詞藻」, 文藝
西 友	1907. 3	1則	詞藻
大韓學會 月報	1908. 5~1908. 10	2則	文苑
大韓協會 會報	1908. 5~1909. 3	117則	文藝「詞藻」
畿湖興學會 月報	1908. 8~1909. 7	62則	藝苑隨錄, 「詞藻」
西北學會 月報	1909. 10~1909. 12	9則	詞藻
天道教會 月報	1910. 8~1910. 9	17則	技藝部, 「詞藻」

抗意識을 奮起시키려 努力했기 때문이다. 一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漢詩와 그 批評의 實際는 이 점을 分明히 해 줄 것이다.

『偶題』—柳溪 洪熙春

사람이면 다 그 삶을 즐기지만
 난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네.
 산 자는 그 義氣를 석히며
 죽은 자는 그 남다름을 드러내는 법.
 죽고 산 매를 논한다면
 품과 묻고기도 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빛나게 청운에 오른 선비
 그 삶은 진실로 부끄러워 할 만하고
 매섭게 물에 빠져 죽은 이
 그 죽음은 진실로 영화로울 수 있네.
 천고의 魂을 불러 내,
 이 현재의 삶을 吊喪코자 하네.

(人皆樂其生, 吾不哀其死, 生者餒其氣, 死者旌其異, 若論死生際, 熊魚可辨此, 赫赫登雲土, 其生良足恥, 烈烈蹈海者, 其死良可榮, 欲招千古魂, 吊此現在生)

평하되, '죽음을 아끼지 않는다'는 석字는 옹당 우리 大韓人의 경계하는 말로 삼아야 한다. (評曰 不惜死三字 當爲我韓人頂門針)⁷⁾

6) 拙稿, 「舊韓末 漢詩批評 研究」(韓國語文論集 第2輯, 大邱大學校 韓國語文 研究所, 1982, p.88).

7) 「大韓協會會報」제12호(1909. 3).

나라를 잃은 처지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가 정면으로 提示되고 있다. 國運이 기울어 가는 마당에서도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꾀하려는 ‘이 현재의 삶’을 吊喪하고, 대신에 價値있는 죽음을 勸하고 있는 것이다. 批評文에 使用된 ‘當’字는 이 경우 폭넓은 共感帶를 確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舊韓末 漢詩 및 批評은 時代的 要求에 副應하는 啓導的 機能을 충실히 발휘하면서 前代의 그것들을 繼承했다는 점에서 그 文學史的 意義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共時的 側面에서 舊韓末의 漢詩와 批評이 鳥瞰되어 漢文學史에 자리 잡힐 때 비로소 올바른 國文學史의 通時的 記述은 可能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 開化期 漢文小說과 挿入詩

前代의 漢文小說과 比較해 볼 때, 開化期 漢文小說에서의 變化는 括弧할 만하다. 특히 文體와 表現 面에서의 變化가 注目된다. 이러한 變化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作品이 바로 鳳山 李鍾麟의 『滿江紅』이다. 이 作品은 일찌기 1914年 5月 28日에 滙東書館에서 單行本으로 刊行되었으 며, 近者에 林明德 教授에 依해 『韓國漢文小說全集』⁸⁾에 다시 紹介되어 世人의 耳目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 作品의 장르에 대해 林明德 教授는,

“其中滿江紅一篇，雖非小說，然因其爲不可多得之韓國漢文戲曲，與小說關係密切，故一併列入，以供學者研究”⁹⁾

라 하여, 『滿江紅』을 ‘漢文戲曲’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이 作品에 대한 廣告文을 보면,

“滿江紅

新式漢鮮文朝鮮小說 漢鮮文小說은 伊來小說界의 新面目...”¹⁰⁾

8) 林明德 主編, 『韓國漢文小說全集』 第9卷(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華民國69年)

9) 林明德, 前掲出, p.7.

10) 『天道教會月報』, 1914. 6月號.

이라 하여 이 作品을 '新式漢鮮文朝鮮小說'로 紹介하고 있어 異彩롭다. 이렇게 이 作品은 小說과 戲曲 兩面에 걸쳐 그 장르가 論議될 수 있는데, 그러한 論議의 端緒는 다름아닌 그 文體와 表現의 特異성에 있는 것이다. 이 作品에는 다음과 같은 特色이 보이고 있다.

첫째, 『滿江紅』에는 '看官'이란 用語가 네 차례에 걸쳐 使用되고 있다. 그리고 이 用語는 中國의 경우, 小說과 戲曲에 두루 쓰이고 있다.

둘째, 이 作品에는 많은 量의 '插入詩'가 들어 있다. 詞가 7首, 七絶이 14首 그리고 歌가 2曲이다. 그런데 이 插入詩들에는 반드시 지은이가 明示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소개되는 部分은 對話의 바로 앞이거나 中間 또는 끝이다. 이 때문에 이 삼입시들은 唱으로 불리우는 듯한 인상이 짙다. 그리고 前代의 韓國漢文小說에서는 辭賦, 詞曲까지 勳員되었으며, 中國의 戲曲에서는 詞 作品이 많이 唱曲되었다.

세째, 이 作品에는 話者表示가 整然하게 明示되어 있다. 元曲에도 물론 話者表示가 되어 있다. 그러나 開化期의 國文小說은 擧皆가 特有的 表記形式인 直接話法의 表示가 되어 있음도 看過할 수 없는 터이다.

네째, 漢文 回章體 懸吐式 白話體 小說이다. 1906년에 發表된 餘他的 開化期漢文小說인 『神斷公案』, 『岑上苔』, 『一捻紅』 등도 漢文 回章體 懸吐式이나 文體에 있어서는 部分的인 白話體를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滿江紅』의 경우는 그 事情이 사뭇 다르다. 거의가 白話로 되어 있다. 특히 어렵다 생각되는 漢文에는 우리말을 동시에 보임으로써 白話文을 소개하고, 나아가 文體의 近代化 乃至 大衆化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 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表 II〉

- ① 爾耶(이리) ② 篤師(스공) ③ 擲着如(주여부친듯) ④ 呵凉吹炎(보비위) 함머 ⑤ 市官(賣官) ⑥ 目無滿足的(音디) ⑦ 汝唐突的(저년) ⑧ 生殺(심으로 죽인다는 方言) ⑨ 撲通(툼뵙)然 ⑩ 浪浪(우루루)然 ⑪ 這個的(저것) ⑫ 叵測(망칙) ⑬ 抹樓下(마님) ⑭ 壓頭(머리집고) ⑮ 桑桑(사부랑사부랑) ⑯ 錦裏羹(비단으로싸서길은) ⑰ 拔見(속을뵙아본다) ⑱ 愛死(이쁜이죽는다) ⑲ 船離歌(비서

다기) ㉔ 霜鶴兒(서리병아리) ㉕ 與之一見(하자(俗語에 떴어 이던 한민보자) ㉖ 兀的兀的(윤격윤격) ㉗ 短裏衣(俗稱단속옷) ㉘ 我母親施主的(音亦) ㉙ 不似的不似的(조잔호년) ㉚ 長端粧(진단장) ㉛ 念舊基的贅肉(俗語에 옛니에서신적구어먹던싱각) ㉜ 石生(돌이살다) ㉝ 廊簾(랑낭아범) ㉞ 寒溫暖話(음드고난단난것) ㉟ 談料(타말이거리) ㊱ 麻了上來(꽃이올나) ㊲ 摺疊了(접어)

이 정도면 漢文 文體에 대한 變革의 意圖는 充分히 엿볼 수 있다.

以上の 分析을 綜合해 볼 때, 『滿江紅』이란 漢文 作品은 所謂 ‘新式 漢鮮文小說’을 試圖한 것이며, 그 때문에 이 小説은 그만큼 더 戲曲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여기서 筆者가 注目하는 것은 1910 年代 中盤에 와서 漢文小說의 變化가 일어났다는 事實이다. 특히 이 變化가 前代의 漢文小說에서 傳統의으로 使用되었던 插入詩의 持續을 바탕으로 可能했다는 事實과, 또 한편으로 開化期 國文小說과의 相互 影響에 依한 것이라는 點은 國文學의 持續性을 검토하는 데 있어 그 意義가 커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舊韓末 漢詩 및 批語, 그리고 開化期 漢文小說에 使用된 插入詩問題가 漢文學史에서 完結될 때, 漢文學의 國文學에로의 編入은 順調로 올 것이며, 특히 漢詩의 國文學史的 處理는 完璧을 期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III. 國文學의 持續性 檢討

筆者가 보기로 漢詩가 미록 오늘날 그 命脈이 끊겨져서 한낱 研究의 對象이 되었지만 그 世界만은 여러 갈래로 現代詩에 受容되고 있다. 그만큼 漢詩는 漢文學의 어느 分野보다도 國文學의 持續性을 檢討하는 데 重要視되어야 한다. 漢詩를 通해서 現代詩가 살핀다는 證據만 捕捉되면

11) 이 점에 대해서는, 「雨田 辛鶴烈先生古稀記念論叢(1983年 刊行豫定)에 실린 「開化期 漢文小說『滿江紅』研究」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持續性 檢討의 問題는 한걸 간단해질 것이며, 漢詩의 國文學史的 處理를 爲한 基準設定도 容易해질 것이다. 이러한 問題 解決에 接近하기 爲해서 筆者는 漢文學 內에서 끊임없이 흘러 내려 온 세 가지 흐름에 着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것은 곧 「朝鮮詩」의 追求過程, 「詩歌一道」思想의 흐름, 그리고 「次韻」의 傳統形成過程에 대한 탐색이다.

1. 「朝鮮詩」의 追求過程

漢詩가 表記 手段은 비록 漢文이지만 그러한 制約 속에서도 많은 文人들은 우리 나름의 素材와 意境을 살리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이 20세기 초반까지 持續되었다는 事實은 注目을 받기에 足하다 할 수 있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그러한 文人들 중에서도 가장 손꼽을 만한 人物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朝鮮詩」가 提唱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에게 즐거운 일이란
 붓을 놀려 미친 듯 글짓는 일.
 어려운 韻에 구애될 필요 없고
 퇴고함에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
 興이 나면 뜻을 움직이고
 뜻이 이르면 즉 그려낼 뿐이다.
 나는 곧 朝鮮사람이니
 달게 朝鮮詩를 지으려다.」
 (老人一快事 縱筆寫狂詞
 競病不必拘 推敲不必遲
 興到即運意 意到即寫之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¹²⁾

윗 詩에서 提唱된 朝鮮詩의 概念은 中國詩에 近似하게 되려고 애쓸 필요없이 우리의 生活感情을 우리 나름의 素材, 詩語로 表現하는 詩를

12) 「與猶堂全書」1集, 卷 6, 『老人一快事 六首』中.

指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朝鮮詩 追求에 대한 慾求是 물론 茶山에게서 처음 보인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여러 가지의 具體的인 資料를 通해서 確認될 수 있듯이¹³⁾, 前代부터 흘러 내려온 하나의 過程이 있다. 이제 그 흐름을 朝鮮詩가 갖추어야 할 素材, 詩語, 意境의 세 가지 面에서 더듬어 보도록 한다.

朝鮮詩가 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 詩의 素材와 意境이 朝鮮的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成覲의 다음 詩는 그 示唆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저 물러난 西京에서 빈 머리에 꽃 꽂았고,
 위엄 떨친 北漢에 신 범 형체 나타냈다.
 굽게 대낮에 神仙되어 가니
 이진히 푸른 하늘엔 잠잠한 별 하나 떠 있구나.」
 (敵退西京花插鬢 威行北漢虎呈形
 愴然白日登仙去 依舊青天一默星)¹⁴⁾

윗 詩에서 ‘花插鬢’은 姜邯贊이 글안을 討破하자 顯宗이 그의 머리에 친히 꽃을 꽂아 준 歷史的 事實의 典故修辭이며, ‘虎呈形’은 그가 漢陽府 判官으로 있을 때 虎患을 나스렸다는 俗傳의 引用인 것이다. 그런데 成覲의 詩는 朝鮮의 故事를 사용한 例인 동시에, 朝鮮地名의 詩化를 꾀했다는 점에서 朝鮮詩의 面目을 지닌다 하겠다. 즉 ‘西京’과 ‘北漢’을 對로 맞추면서 朝鮮詩的인 분위기를 創造하고 있다. 그만큼 朝鮮的인 素材와 意境은 朝鮮의 地名이나 物名에 의해서 더욱 具體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事實上 朝鮮詩의 追求過程에서 가장 重要視되었던 것은 朝鮮地名, 朝鮮物名의 詩化였다. 여기서 그 例를 드는 것은 생략하지만, 地名 乃至 物名의 詩化에 대한 言及은 崔滋로부터 許筠, 洪萬宗, 柳夢寅,

13) 拙稿, 「漢文學을 통해 본 朝鮮詩追求의 흐름」(白影 鄭炳昱先生 還甲紀念論叢, 新丘文化社, 1982) 참조.

14) 洪重寅, 「詩話彙成」(詩話外 漫錄, 韓國古典文學大系 19, 民衆書館, 1966, p. 408).

鄭東愈(1744~1808), 朴趾源, 丁茶山에까지 넓게 걸쳐 있으며 乃其也는 岸曙 및 素月에게까지 그 影響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런 點에서 朝鮮詩 追求의 흐름은 漢文學이 現代文學에 連結될 수 있도록 해 준 중요한 精神的 撐柱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쓰여질 國文學史에서는 朝鮮詩의 概念에 合當하다고 생각되는 漢詩는 마땅히 記述되어야 할 것이며, 同時에 朝鮮詩에 대한 探究도 더욱 철저히 行해져야 할 것이다.

2. 「詩歌一道」思想의 흐름

漢詩와 時調는 兩班意識을 積極的으로 나타내기에 要請되는 장르라는 점에서 兩者 사이의 交流는 일찍부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漢文學과 國文文學의 交流를 促進시켜준 要因으로 우리는 「詩歌一道」思想을 들 수 있다. 歌曲集 序·跋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用語는 물론 漢詩와 時調가 한가지라는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것은 時調가 音樂上 '時調唱'의 개념으로 불러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用語의 概念은 本是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原來「詩歌一道」에서 '詩'는 노래의 가사(漢詩)이며, '歌'는 그 가사를 長短의 節奏를 갖추어 말로 나타낸 것이다. 즉 '永言'인 것이다. 따라서 時調集 序·跋에서 詩歌一道를 主唱한 意圖는 時調詩型으로의 時調가 歌唱되었기 때문에 이 時調를 歌로 認定하러 한 점에 있다 하겠다. 결국 「詩歌一道」의 개념은 朝鮮 後期 시조 편찬자들에 의해서 擴大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用語의 개념을 가장 요령있게 파악한 사람은 旅菴 申景濬이라 할 만하다. 그는 詩와 聲을 다룸에 있어서 詩意를 五聲十二律이 가지는 情趣와 諧和시켜 보려 했으며, 또한 詩語마다의 聲을 五聲으로 配分해 보려 노력하였던 것이다.¹⁶⁾ 時調集 序·跋에서 五聲(宮

15) 拙稿, 「漢文學을 통해서 본 朝鮮詩 追求의 흐름」 참조.

16) 崔信浩, 「申景濬의 「詩則」에 대하여」(韓國漢文學研究 第2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77, p.6).

·商·角·徵·羽)과 五音(牙·舌·唇·齒·喉)의 關係, 各調(平·羽·界面調)의 體格과 五聲·五音의 情趣와의 비교를 꽤 깊이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¹⁷⁾ 바로 旅菴의 영향이라 판단되는 터이다. 그러나 旅菴이 漢詩의 情趣를 聲律의 그것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作業은 대단히 專門的인 것이며, 中國의 音律에 精通하지 못한 거개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작업일시 분명하다.

따라서 漢詩를 일단 우리말로 時調化하여 消濁에 맞추고 高低를 화합하여 歌唱하기가 훨씬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이 漢詩의 時調化야말로 「詩歌一道」의 개념을 時調에 적용시키는 올바른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漢詩가 지니고 있는 風格을 드러내는 장치가 同時에 隨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장치가 다름아닌 各調의 體格이나 「歌之風度形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一例로 李奎報의 『春日訪山寺』詩

「바람 고르고 일기 마스한테 새소리 지저귀고,
느러진 버들 그늘 가운데 문짝 반닫 닫혔네.
낙화 가득찬 땅에 중은 취해 누워 있으니,
山家엔 오히려 태평스런 자취 띠고 있네.」
(風和日暖鳥聲喧 垂柳陰中半掩門
滿地落花僧醉臥 山家猶帶太平痕)

가 다음과 같이 時調化되어 歌唱되었다.

No. 2425¹⁸⁾

日暖코 風和헛터 鳥聲이 嘈嘈로다
滿庭落花에 閒暇히 누어스니
아마도 !山家今日이 太平인가 ㅎ노라

界 二數大業

17) 拙稿, 「古時調批評攷」(大邱大學校 人文科學研究 第1輯, 1982, pp.31-34 참조)

18) 沈載完 編, 「歷代時調全書」(世宗文化社, 1972)의 作品番號임. 以下도 同一함.

原詩의 承句를 생략한 이 作品이 界面調 二數大葉으로 歌唱되었음을 볼 때, 原詩도 界 二數大葉이 지니는 風格과 風度形容에 가까운 風格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詩와 歌는 名實相符하게 한가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詩歌一道」思想은 漢詩의 時調化를 可能케 했다는 點에서 國文學의 持續性的의 探究에 대단히 重要的 思想으로 浮刻된다. 그것은 이 思想이 漢詩를 時調에 受容케 했을 뿐만 아니라 漢詩의 時調化를 오늘에까지 持續시킨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漢詩 中에서 옛 날이나 현재를 막론하고 時調化된 것은 마땅히 國文學史에 記述·紹介되어야 할 것이다.

3. 「次韻」의 傳統形成過程

原來 次韻은 和韻의 一種으로 남이 지은 詩의 韻字를 그대로 달되 先後의 順序도 原作대로 따르는 法, 또는 그렇게 詩를 짓는 일을 말한다. 이 次韻의 歷史를 보면 中國 魏에서 始作되어 中唐 以後에 盛行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草創期 漢文學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現代에 까지 그 命脈이 유지되고 있다. 이 次韻法에 대해서는 詩人의 性情과 神韻을 손상시킨다는 面에서 그 效用이 否定的이었으나, 한편 詩人으로 하여금 詩才와 技巧를 培養시켜 준다는 點에서 여러 詩人들에 의해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次韻은 前代의 詩作品을 後代에 傳達하고, 詩人 相互間的 師承, 交友關係를 파악케 하며 나아가 漢詩文學의 傳統的 要素를 계승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 機能이 발휘되었다.¹⁹⁾

이러한 次韻의 傳統形成機能은 鄭知常의 七絶인 『送人』詩

「비 갠 언덕 위 풀빛 푸른데
南浦로 임 보내는 구슬픈 노래
大同江 물이야 언제 마르리

19) 拙稿, 「漢詩 次韻攷(其一)」(張德順 先生 華甲紀念, 韓國古典散文研究, 同和文化社, 1981) 참조.

해마다 이별 눈물 보태는 것운]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에 대한 次韻詩들을 通해서도 밝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 作品만큼 오랜 期間에 걸쳐 次韻된 漢詩를 찾기는 그리 容易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作品에 대한 次韻詩로서는 아무래도 金宗瑞(1390~1453)의 『南浦』詩

「님 보내는 강머리엔 설움도 많아
 이별곡 처량히 끊겨 노래되지 못하네
 하느님 바람 불러 出征 막으려는지
 이 저녁 대동강에 늦파도 이는구나」
 (送客江頭別恨多 管絃凄斷不成歌
 天教風伯阻征旆 一夕大同生晚波)

를 제일 먼저 들지 않을 수 없다. 윗 시에는 出征가는 남편에 대한 지 어미의 애뜻한 情이 曲盡하게 그려져 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가락은 바로 님을 보내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며, 비바람 내리쳐 出征을 못하게 하느님께 渴求하는 내용은 바로 知常詩의 意境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하겠다. 次韻詩는 原作의 韻뿐만 아니라 意境까지 담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뒤를 이어 李克堪(1427~1465)의 『次大同江樓船韻』, 李匡呂(生卒未詳)의 『次鄭知常韻』, 貞軒 李家煥(1742~1801)의 『練光亭次鄭知常韻二首』, 紫霞 申緯(1769~1845)의 『西京次鄭知常韻』 등의 次韻詩들이 接踵하여, 滄江 金澤榮(1850~1927)의 『滄江別曲次鄭知常韻二首』로 그 掉尾가 장식되고 있다.

「백마는 돌아가자 꺾꺾 날뛰고
 3月 江城엔 구슬픈 노래 진동하네
 妾 있는 곳 가을풀 생겨도 기꺼우나

님의 맘 흐르는 저 물 같을까 두려울 뿐이네」

(白馬翩翩歸思多 江城三月動悲歌

不辭妾地生秋草 只怕郎心似去波)

「대동강 물은 부질없이 많기만 하고

임 보낼 배에선 흥겨운 뱃노래 한창

연꽃같은 붉은 뺨엔 울은 다하여

물결에 보낼 눈물마저 이젠 없구나」

(大同江水水空多 長送歡舟唱棹歌

啼盡紅蓮花兩頰 祇今無淚可添波)

타고 온 백마는 남의 속도 모르고 돌아가자 날뛰고, 구슬픈 노랫가락은 江城을 뒤흔든다. 뱃길 좋아지게 대동강 물은 부질없이 많기만 하고 무엇이 그리 좋은지 뱃전에서 흥겹게 뱃노래 불러댄다. 이젠 더 낼 수도 없는 이별의 눈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으나, 저 흘러가는 물같이 님의 마음도 영영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만 된다. 知常의 『送人』이 있었기에 이처럼 애뜻한 風情을 담은 詩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漢詩 次韻의 效用은 상당히 肯定的으로 해석되어 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李壽福(1924~)의 『봄비』는 漢詩次韻의 傳統을 現代詩에 繼承시킨 作品으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知常의 『送人』에 대해 次韻했다는 점에서 특히 더하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푸르른 보리밭 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겠다.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빙글어질 고운 꽃밭 속

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

〈『봄비』全文〉

이 作品을 일별할 때, 우선 7.5調를 主調로 한 起·承·轉·結의 結句 形式으로 되어 있으며, 第一, 二, 四聯에 달린 ‘—다’라는 脚韻이 곧 『送人』의 ‘多·歌·波’의 韻을 밝은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내용 상으로 볼 때, 第一聯은 「兩歇長堤草色多」를 풀어 쓴 듯하며, 특히 〈서러운 풀빛〉이란 구절로 知常의 詩가 갖는 情調를 드러내고 있다. 第二聯에서는 〈종달새의 지껄임〉으로 「動悲歌」에 對比시키고 있으며, 第三聯에서도 〈꽃과 처녀애들〉을 登場시켜,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의 意味로 使用함으로써, 「大同江水何時盡」의 의미, 즉 이별이라는 人事의 덧없음과 大同江水라는 自然物의 永久性에 대비시키고 있다. 또 第四聯에서는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겠다〉하여 매년 봄이면 죽은 님 생각이 어김없이 到來함을 知常의 「別淚年年添錄波」, 곧 매년 계속되는, 南浦에서 흘리는 이별의 눈물에 결부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約 9世紀 前의 作品이 오늘에까지 次韻되고 있음은 勿論 作品 자체가 지니고 있는 韓國의 情調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結局은 漢詩 次韻法이 갖는 傳統形成의 機能에 緣由하는 것이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못 詩人들에게 次韻된 漢詩들은 계속 추적되고, 그 중에서도 現代詩에 接脈된 것이 發見되면 國文學史에 記述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漢詩가 國文 文學에 接脈되는 樣相은 여러 갈래일 수 있다. 本稿에서는 세 가지만을 다루었으나, 더 以上の 갈래는 研究가 계속되는 대로 그 모습이 드러나리라 기대된다. 이렇게 國文學에 기술될 漢詩의 選別 基準을 마련해 놓는다면, 漢詩의 國文學史的 處理는 그만큼 容易해질 것이며 더욱 分明해질 수 있을 것이다.

IV. 處理되어야 할 漢詩들

前章에서 이미 言及한 대로, 國文學史에 記述될 漢詩의 選別은 어디까지나 國文學의 持續性이 그 基準이 되어야 한다. 곧 「朝鮮詩」의 概念이나 「詩歌一道」思想의 概念 그리고 「次韻」의 傳統形成機能을 염두에 두고 漢詩 選別의 作業은 行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러한 基準에 合當한 漢詩들을 찾는다면, 우선 鄉歌, 別曲, 時調 等の 國文 文學에 關聯된 諸作品들이 제격일 것이다. 왜냐하면 漢文學이 表記 手段은 비록 漢字이지만 素材와 意境이 모두 우리나라의 것일 때, 그것은 쉽사리 우리나라 文學으로 土着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漢詩가 國文 文學에 接脈되는 過程을 追求해 나가면서, 그 土着화된 모습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鄉歌에 關聯된 漢詩

漢文學과 鄉歌文學과의 接木은 漢詩의 첫번째 土着化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不幸히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李佑成 教授의 見解에 따르면²⁰⁾ 漢文學과 鄉歌文學의 接木은 新羅人들 사이에서 이미 論議된 바는 있었으나, 끝내 達成되지 못한 채 兩者는 別個의 文學으로, 相互間의 아무런 關聯이 없이 高麗로 引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新羅時代가 아니긴 하나, 高麗에 와서 鄉歌와 漢詩의 接脈現象은 分明히 發生했다. 곧 崔行歸가 均如의 『普賢十願歌』 11首를 漢詩로 翻譯한 것이 그 例라 할 수 있다. 그의 譯序를 보면,

“...이 願王歌는 읊어서 그 詩客을 대신함으로써 남녀들에게 다 들려 發願하여 길이 뛰어난 인연을 맺게 하고 자기와 님을 모두 구제해 성공하게 하니 마침내 殊妙한 결과에 들어가지 않으랴? 이같이 되면 8,9行의 唐序는 뜻이 넓고

20) 李佑成, 「高麗末期의 小樂府」(韓國漢文學研究 第1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76, pp.7-8 참조)

문장이 넉넉하며, 11首의 鄉歌는 문장이 맑고 글귀가 아름다와 그 작품됨이 명칭은 詞腦라 하지만 貞觀의 詞를 업신여길 만하고 정교하기 賦의 첫머리와 같으니 惠明의 賦에 비교할 만하다.²¹⁾

하여, 崔行歸는 鄉歌의 作品됨이 中國의 詞·賦에 比肩될 만큼 훌륭하다 생각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中國人들에게 알리기 위해 漢詩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漢詩와 鄉歌, 곧 漢文學과 國文文學의 接木은 이루어 졌으니 이 현상의 國文學史的 意義는 자못 큰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제 그 譯詩의 하나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禮敬諸佛歌』(普賢十願歌 其一)

마음으로 붓삼아 부처님 그리며
 넉넉히 절하니 두루十方에 응하거라
 티끌마다 모두 부처의 나라며
 절마다 온갖 부처님이라
 보고 듣고 깨달으니 多生은 멀고
 禮敬하고 문안 올리니 永劫은 길도다
 몸과 말씀과 뜻의 業報
 모두 심중 안내고 이를 宗旨 삼노라
 (以心爲筆畫空王 瞻拜唯應遍十方
 一一塵塵諸佛國 重重刹刹衆尊堂
 見聞自覺多生遠 禮敬寧辭浩劫長
 身體語言兼意業 總无疫厭此爲常)

7言律詩로 번역된 『禮敬諸佛歌』의 原 뜻을 살피기 위해 原文과 그 現代語譯을 紹介한다.

心未筆留
 慕呂白乎隱佛體前衣
 拜內乎隱身萬隱

21) 「均如傳」第八, 譯歌現德分者

“…得不詠此願王 代其詩客 使男女共聞而發願 永結殊因 自他兼濟而成功 終歸妙果者乎 夫如是 則八九行之唐序 義廣文豐 十一首之鄉歌 詞清句麗 其爲作也 號稱詞腦 可欺貞觀之詞 精若賦頭 堪比惠明之賦…”

法界毛吡所只至去良
 靈靈馬洛佛體吡利亦
 利利每如遮里白乎隱
 法界滿賜隱佛體
 九世盡良禮爲白齊
 歎曰 身語意業无疲厭
 此良大作沙毛吡等耶

마음의 붓으로
 그리운 부처 앞에
 절하는 몸은
 法界 없어도 이르거라
 티끌마다 부처 절이며
 절마다 뉘서 놓은
 法界 차신 부처
 九世 내내 절하옵저
 아아, 身語意業无疲厭
 이리 宗旨 지어 있노라²²⁾

原詩(鄉歌)의 뜻을 보니 崔行歸의 漢譯은 상당히 忠實하다. 나머지 10首都 모두 7言律詩로 번역되어 있다. 이로 보아 10句體의 긴 內容을 忠實하게 담기에는 絕句形式은 不適當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漢詩와 國文 詩歌와의 접촉은 國文 詩歌를 번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現象은 高麗詩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 別曲에 關聯된 漢詩

漢詩와 高麗俗謠와의 接木은 高麗末期의 士大夫文學 속에 登場한 「小樂府」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李佑成 教授에 依하면,

“小樂府는 高麗의 俗謠를 七言絕句의 詩形式 속에 담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表記手段을 갖지 못한 口傳의 俗謠들을 七言絕句의 詩形式을 빌어 再現시킨 것이다. 新羅 鄉歌와의 接木이 達成되지 못했던 漢文學은 이제 高麗俗謠와의 接

22)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韓國文化研究叢書 21, 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pp.163-4.

木을 통해서 우리나라 文學으로서의 漢文學의 土着化라는 傳統的 命題의 成就 過程에 重要な 한 里程碑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²³⁾

하여, 그 兩者의 接木이 갖는 文學史的 意義를 크게 評價하고 있다.

이제 益齋 小樂府 所載 漢譯詩 11首와 閔思平의 小樂府 6首를 原文대로 소개한다.

〈表 III〉 益齋의 小樂府

- 長 岩：抱抱有雀爾奚爲 閃着網羅黃口兒
眼孔元來在何許 可憐網羅雀兒癡
- 居士 戀：鶻兒籬際噪花枝 蟾子床頭引網絲
余美歸來應未遠 精神早已報人知
- 濟 危 寶：浣沙溪上榜垂楊 執手論心白馬郎
縱有連簷三月雨 指頭何忍洗餘香
- 沙 里 花：黃雀何方來去飛 一年農事不曾知
鰥翁獨自耕耘了 耗盡田中禾黍爲
- 處 容：新羅昔日處容翁 見說來從碧海中
貝齒頰脣歌夜月 薰肩紫袖舞春風
- 五 冠 山：木頭雖作小唐鷄 筋子拈來壁上棲
此鳥嚶嚶報時節 慈顏始似日平西
- 鄉 瓜 亭：憊君無日不霑衣 政似春山蜀子規
爲是爲非人莫問 只應殘月曉星知
- 都 近 川：都近川頰制水坊 水精寺裡亦滄浪
(假 題) 上房此夜藏仙子 社主還爲黃帽郎
- 耽 羅 謠：從教墟麥倒離披 亦任丘麻生兩歧
滿載青瓷兼白米 北風船子望來時
- 少年春遊：脫脚春衣掛一肩 呼朋去入菜花田
(假 題) 東馳西走追蝴蝶 昨日嬉遊尚宛然
- 西京別曲：縱然岩石落珠璣 纓纒固應無斷時
與郎千載相離別 一點丹心向改移

〈表 IV〉 閔思平의 小樂府

- 情人相見意如存 須到黃龍佛寺門

23) 李佑成, 前揭論文(前揭論文集, p.9)

- 冰雪龍顏雖未視 聲音彷彿尚能聞(第一章)
- 浮漚收拾水中央 瀉入龜蹊經布裏
擔荷扇來其樣範 恰如人世事荒唐(第二章)
 - 黑雲橋亦斷還危 銀漢潮生浪靜時
如此昏昏深夜裏 街頭泥濘欲何之(第三章)
 - 三藏精廬去點燈 執吾鐵手作頭僧
此言若出三門外 上座閑談是必應(第四章)
 - 紅絲綠線與青絲 安用諸般雜色焉
我欲染時隨氣染 素絲於我最相宜(第五章)
 - 再三珍重請蜘蛛 須越前街結網爲
得意背飛花上蝶 願令粘住雀怨違(第六章)

〈表 Ⅲ, Ⅳ〉를 통해서 別曲에 關聯된 漢詩들은 모두 7言絶句의 樂府形式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鄉歌의 번역과는 달리, 原詩歌의 主題나 素材, 作家意識을 극히 개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小樂府들은 失傳된 高麗의 歌謠를 살피게 해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귀중한 資料가 아닐 수 없다.

〈表 Ⅲ〉의 漢譯詩는 불과 11首이나, 佛敎의 世俗化, 官리의 收奪, 政治現實의 非情에 대한 예리한 諷刺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處容歌, 西京別曲과 鄭石歌, 그리고 鄭瓜亭曲 등이 포함되어 있어 麗代에 流行하던 중요한 俗謠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歌詞가 傳하지 않는 高麗歌謠의 漢譯詩를 통해서, 이들에게서 詩化된 主題, 表現方法, 批判意識이 다음에 나타난 文學形態인 時調에서 어떻게 反復되거나 또는 變貌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研究²⁴⁾가 進行될 수 있었다. 이렇게 別曲에 關聯된 詩謠를 통해서도 國文學의 持續性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漢譯詩의 價値는 尊重되어야 할 것이다.

〈表 Ⅳ〉의 譯詩는 益齋에게 和答한 것으로 되어 있다.²⁵⁾ 그런데 李佑

24) 鄭憲媛, 「高麗漢譯詩歌攷」(冠嶽語文研究 第5輯,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0) 참조.

25) 李佑成, 前掲論文(前掲論文集, p.13 참조)

成 教授에 依하면 第 4 章과 第 5 章만이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第 1 章과 第 6 章은 확실치는 않지만 推定이 가능하고, 第 2 章과 第 3 章은 推定조차 不可能하다. 여기서 筆者의 눈을 끄는 것은 第 6 章이다. 張德順 博士의 「韓國文學史」에는 『月精花』에 대한 高麗史 樂志의 해설만 소개되어 있을 뿐 그 歌謠의 內容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기 때문이다.²⁶⁾〈表 IV〉의 第 6 章, 곧

「再三 珍詠히 거미에게 請하노니
 앞 길저리에 그물을 쳐 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저 꽃 위 나비를
 붙잡아 매어 두고 제 허물을 반성케 해 다오」

는 樂志에 나오는 『月精花』 그것이라고 推定되는 것이다. 이렇게 閔恩平의 小樂府를 통해서도 失傳된 別曲의 歌詞를 再構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別曲에 關聯된 漢詩들은 모름지기 國文學史에 登載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3. 時調에 關聯된 漢詩

朝鮮朝에 와서도 漢詩는 時調와 接木이 되면서 그 土着化를 다져 나갔다. 紫霞 申緯(1769~1847)의 小樂府 40章이 그 代表的인 例가 된다. 그는 小樂府의 緒言에서 우리나라 音律의 長短點과 李齊賢 以來의 傳統을 이어 小樂府를 짓게 되었다는 趣旨를 말하고 朝鮮 歷代의 時調를 골라 亦是 7言絶句로 40章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렇듯이 漢文學과 國文 文學은 鄉歌로부터 시작하여 時調에 이르기까지 서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바꾸어 말해 兩者의 連續性은 부단히 追求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時調는 鄉歌나 別曲과는 달리 漢詩를 逆으로 受容했다는 점에서 特異하다 할 수 있다. 곧 漢詩의 時調化가 그것이다. 鄉歌나 別曲을 통해서 漢文學이 우리나라 文學으로서의 體質 改善과 位置 定立을 指向

26) 張德順, 「韓國文學史」, p.134 참조.

했다면, 時調의 경우는 漢詩를 통해서 國文 文學의 領域을 넓히고 깊이를 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몇首의 時調를 살펴 보자.

No. 275

狂風에 쉴년 梨花 가며오며 날이다가/ 柯枝에 못오르고 걸이저다 짐의 줄에/
저짐의 落花 衄를 모르고 나무 잡듯 하도다.

No. 260

空山木落雨蕭蕭호의 相國風流 | 此寂寥 | 라
슬프다 호 盞 술을 다시 勸키도 얼어애라
어즘어 昔年歌曲이 即今調 | 가 호노라

No. 1097

뭇노라 저 禪師야 關東風景 잇더티니
明沙十里에 海棠花 불것노의
遠浦에 兩兩白鷗는 飛陳雨를 호더라

比較的 漢臭가 덜 나는 時調를 擇해 보았다. No. 275는 高麗 詩人 金堉의 『落梨花』詩,

飛舞翩翩去却回 倒吹還欲上枝開
無端一片粘絲網 時見蜘蛛捕蝶來

를 換骨奪胎시킨 時調이며, No. 260은 石洲 權輿의 『過松江墓有感』詩,

空山木落雨蕭蕭 相國風流今寂寥
惆悵一盃難更進 昔年歌曲即今朝

를 번역한 時調이며, No. 1097은 「東人詩話」에 나오는 다음의 句絶

“僧禪坦 谷城人 其遊嶺東詩曰
「明沙十里海棠花 白鷗兩兩飛疎雨」
有人將遊關東 聞坦此句已得矣 遂旅行”

에서 二句의 漢詩와 그에 얽힌 詩話를 致妙하게 活用하여 만든 時調이다.

이렇게 時調는 韓國漢詩 및 詩話를 受容하면서 漢文學과의 關係를 持續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傳統을 形成하면서 近代를 거쳐 現代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漢詩의 時調化는 岸曙, 六堂, 가람, 鷺山 等の 詩人들에 의해 持續되었던 것이니,²⁷⁾ 이러한 事實들은 國文學의 持續性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足하다 하겠다.

要컨대 漢詩는 鄉歌·別曲·時調와 接木되면서 所謂「朝鮮詩」가 될 수 있었으며, 朝鮮 後期에 이르러 民謠 趣向을 자체 속에 끌어 들이는 一大變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時調의 경우는 漢詩의 世界를 수용하면서 漢詩와의 거리를 短縮시켰던 만큼, 時調로 번역된 漢詩도 國文學史의 記述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V. 結 論

以上の 論議를 通해서 筆者는 漢詩의 國文學史의 處理를 爲한 試案을 提示해 보았다. 그 方案의 核心은 다름이 아니라 古典과 現代를 이어줄 수 있는 方法의 모색이었다. 이를 위해 第Ⅱ章에서는 漢文學史의 補完問題를 다루었다. 完備한 國文學史를 記述하기 위해서는 漢文學史의 定立이 時急한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刊行된 漢文學史에서 빠뜨린 舊韓末 漢詩 및 批評과 開化期 漢文小說과 이에 나타난 挿入詩를 補完했다.

다음 第Ⅲ章에서는 國文學史의 記述에 있어서 第一 重要視해야 할 것이 國文學의 持續性이라 생각하고, 漢詩文學 內에서 계속 흘러 國文文學에 들어간 세 갈래의 傳統的 要素를 다루었다. 이는 漢詩 選別에 있어 一定한 基準을 設定하기 위한 作業의 一環으로 마련된 것이다. 즉 「朝鮮詩」의 概念은 六堂, 岸曙, 素月 等の 詩人들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27) 拙稿, 「岸曙의 漢詩翻譯過程」(국어국문학 第86號, 국어국문학회, 1981) 참조. 筆者는 六堂, 가람, 鷺山의 漢詩翻譯活動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

「詩歌一道」思想은 歌曲集의 편찬자들에 의해 확대 受容되었고, 「次韻」의 傳統은 現代詩人에 의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第Ⅳ章에서는 漢詩와 國文詩歌와의 接木에 着점을 맞추어 國文學史에 于先의으로 紹介되어야 할 漢詩의 類型을 提示해 보았다. 韓國漢文學은 高麗의 향가에 와서 비로소 그 土着化의 뿌리를 내리, 別曲·時調에 이르러 든든하게 接木되었음을 구체적인 作品을 통해 살필 수 있었다.

結論의으로 말해서 漢詩의 國文學史的 處理는 한글 創製 以前·以後라는 時代區分에 관계없이 國文學의 持續性을 보인 漢詩 作品을 主對象으로 할 때 그 畧은 분명해 질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結論은 漢文學의 다른 分野의 處理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期待되는 것이다. 앞으로 國文學의 持續性에 관련되는 漢詩文學 內에서의 다른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探索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1981).
 沈載完, 歷代時調全書(1972).
 李圭虎, 漢詩 次韻攷(1981).
 _____, 岸曙의 漢詩翻譯過程(1981).
 _____, 古時調 批評攷(1982).
 _____, 舊韓末 漢詩批評研究(1982).
 _____, 漢文學을 통해 본 朝鮮詩 追求의 흐름(1982).
 _____, 開化期 漢文小說『滿江紅』研究(1983 豫定)
 李佑成, 高麗末期의 小樂府(1976).
 林明德, 韓國漢文小說全集(中華民國 69年)
 張德順, 韓國文學史(1980).

- _____, 漢文學의 國文學史的 處理試考(1977).
鄭漢模, 開化期 詩歌의 諸問題(1977).
鄭惠媛, 高麗漢譯詩歌攷(1980).
趙東一, 문학연구방법(1980).
_____, 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관점(1981).
_____, 한국문학통사(Ⅰ)(1982).
崔信浩, 申景澮의 「詩則」에 대하여(1977).
_____, 國文學과 漢文學의 連續性 問題(1980).